

“여러분의 원고가 책이 됩니다”

순천시, '1인1책 쓰기 사업' 출간도서 출판기념회 개최 근무하면서 느낀 점·농사 잘 짓는 비법 등 기록 14권 발간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1인1책 쓰기 사업으로 출간된 직원들의 도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엔 출판된 도서는 총 14권으로 그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 농촌지도사의 농사 잘 짓는 비법 등 자신의 업무분야의 노하우 등을 기록했던 원고를 모집해 책으로 발간했다. 또, 상반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모집한 원고도 8권의 책으로 출간되어 22일 삼산도서관에서 시민작가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판된 시민과 직원들의 책은 순천시립도서관에 비치되며, 출간도서 22권 중 일부는 순천 내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이 누구나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1인1책 쓰기 사업'을 통하여 전 시민이 한 권의 책을 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는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와 책 출판부터 글쓰기까지 배울 수 있는 '1인1책 쓰기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미래 자서전 쓰기',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시민 그림책 만들기' 그리고 시청 직원들의 '1인1책 쓰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는 28일까지 시민들의 원고를 모집해 출판교육과 교정 등을 통해 10권의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문화재 시설 점검·환경정비 추진 문화유적 관광지 등 14개소 방역·소방점검 등 실시

광양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마로산성', '옥룡사지 일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유당공원)', '마로산성'과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사', '광양역사문화관', '도지정문화재인 '광양향교', '김시식지' 등 14개소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

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문화재와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풀베기와 안전 소방점검 등을 실시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와 주변 시설물인 석축, 담장, 목조문화재의 목부재 부식 등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경미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재 예방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농수특산물 미국 아마존 입점 준비 착착

고흥 유자·김 등 미국시장 맞춤형 상품 컨설팅 실시



고흥군은 “미국 아마존 벤더 업체 Kreassive(대표 Sean

Chang)과 아마존 입점을 위한 현지시장 맞춤형 상품 컨설팅을 최근 2차례 실시했다. 군은 크리에이티브와 미국 아마존 등 온·오프라인 시장에 고흥산 농수산물 1백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협약을 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크리에이티브는 지난 2014년 미국 LA에 설립돼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하고 있으며, 영국과 중국에도 지사를 두고 연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

는 기업으로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미국 유통 기업이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크리에이티브 아놀드 전 부대표는 “우수한 고흥 농수산물 및 특산가공품을 미국 현지 시장에 맞추어 레시피, 무게, 포장, 디자인 등을 컨설팅하여 내년 1월 아마존에 4~5개 상품 정도를 입점할 계획으로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예천식품 김경욱 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판로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있다며, 이번 컨설팅이 고흥 농수특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코로나19 확산... 공공시설·일자리사업 운영 중단

오는 9월 4일까지

보성군은 수도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공공다중이용시설과 일자리 사업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공공시설은 총 489개소이며,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시설 455개소, 문화시설 9개소, △보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16개소, △울포해수욕장센터, 한국차 박물관, 봇재 등 관광시설 3개소, △울포솔밭해수욕장, 명교·군

학·장군재 백사장, 득량만바다낚시공원 등 해양시설 4개소다.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는 이미 예약한 주말 숙박객을 끝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부터 휴관에 돌입한다.

일자리 사업은 마을환경정비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 2천여명 가까이 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수가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전남 1호 수소충전소' 준공

전남수소경제 '선도'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는 최근 여수시 중흥동 SPG수소여수공장 부지에 전남 1호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하루 전 “제13차 에너지전략포럼”에서 “그린뉴딜과 연계해 대폭적인 수소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직후라 더 주목을 받는다. 이날 예정되었던 준공식은 코로나19 급속한 재확산과 전국적인 폭

우 피해로 취소되고, 권오봉 여수시장과 업체 관계자들이 시설물 점검과 수소차 충전 시연, 시승 행사, 기념 촬영을 가졌다. 수소충전은 시간당 승용차 5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무 예정이다. 여수시는 수소충전소 준공에 맞춰 사전 접수 받은 수소차 70여대를 출고 요청하고, 연내 100대 보급을 목표로 수소차 보조금(3,750만원/1대)을 추가 접수 중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경